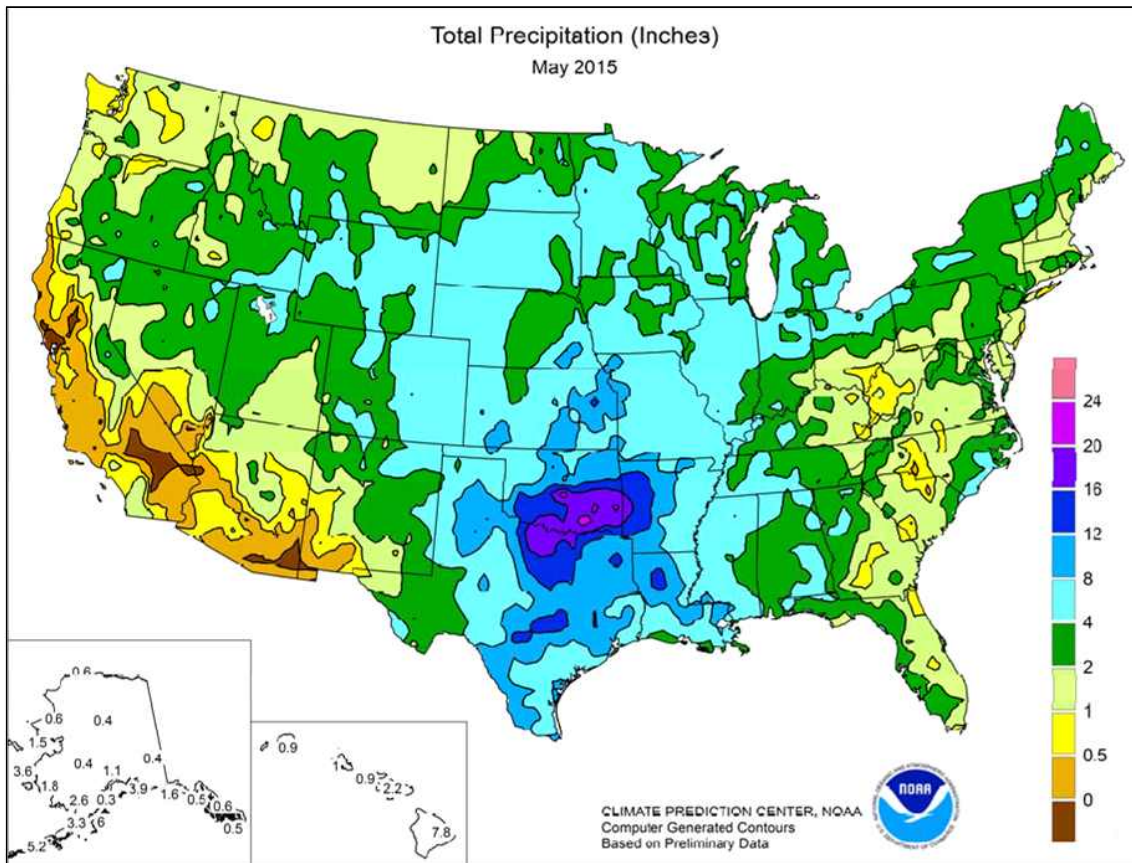


6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23)

□ 미국 기후 현황(5/31~6/6)



미국 남부-중부 전역에 가뭄이 확산되었다. 남부 평원의 겨울밀 수확은 침수된 경작지의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주 작업이 지연되었던 면화와 수수 파종도 재개되었다. 하지만, 서부 걸프연한 지역과 중-남부지역에서는 일부 강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북쪽 지방인 네브라스카 남동부지역, 미주리 북서부지역, 캔사스 북동부지역 등에서는 지역에 따라 4인치 이상의 강우가 내렸고 이 때문에 이미 지연되고 있는 옥수수과 대두 파종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한, 이번 비로 미주리강 저지대와 지류가 범람하기도 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에서도 비가 내렸는데, 단기간 유지되던 가뭄을 다소간 해소시켜 주었다. 캐롤라이나와 뉴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2인치 이상의 비가 왔고, 동부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건조하고 서늘한 날씨가 지속되어 작물 수확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로키산맥 북부지역과 중서부지방에서는 소나기가 내렸고, 겨울밀과 봄철 곡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었다. 북서부지역에서는 주 초반에 소나기가 나리기도 했지만 이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었고 주 후반부에는 때늦은 소나기가 내렸다. 북서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F 이상 높았지만, 위스콘신, 미시간 북부, 미네소타 북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5°F 정도 낮은 기온을 보였다.

## □ 농업 현황 요약(5/15~5/31)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는데, 특히 태평양 북서부 지역과 대평원에서는 평년 기온보다 6°F 이상 높았다. 반면 미시시피 강 동쪽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었는데 중부 옥수수 재배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F 이상 낮았다. 미국 전역에서 강수량은 1.5인치 수준을 기록했지만, 네브라스카 남동부와 캔사스 북동부에서는 6인치 이상 비가 내리기도 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폭풍우로 인해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고, 일부 재배지에서는 파종을 다시 하기도 했다.

### ■ 옥수수

6월 7일까지 총 재배지의 91%가 발아하였고, 이는 지난해와 직전 5년 평균보다 약간 앞선 상황이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아이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매우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 겨울밀

출수율은 이번 주말까지 91%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년 동기보다 6%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7%p 앞선 것이다. 백맥(白麥)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도 출수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다호에서는 출수율이 69%를 보였는데, 이는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45%p 높은 것이다. 반면, 소맥(小麥)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작년보다 낮은 상황이며, 예외적으로 오하이오에서만 출수율이 87%를 기록했다. 6월 7일까지 총 생산량의 4%에 해당하는 겨울밀을 수확하였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4%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8%p 낮은 상황이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밀 수확이 늦어지고 있다. 겨울밀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3%가 매우 좋은 생육 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3%p 높은 수준이다.

### ■ 면화

이번 주말까지 총 재배지의 8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파종이 끝났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6%p 그리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8%p 낮은 수준이다. 남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파종이 앞당겨졌는데, 캔사스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52%p, 텍사스에서는 29%p 진전되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0%가 매우 좋은 생육 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 ■ 쌀

6월 7일까지 총 재배지의 95%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아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작년과 직전 5년 평균보다 3%p 앞선 것이다. 발아가 처음 관측된 지역은 루이지애나였는데, 주말까지 2%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작년 동기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세계 기후 현황(5/31~6/6)

- 유럽: 전역에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곡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었다. 스페인과 프랑스 중부, 폴란드, 발칸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2~7°C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겨울밀과 유채 성장이 촉진되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겨울밀 수확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전반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관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남부와 중부, 서부 지역과 폴란드 북부지역에서도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겨울밀과 유채 재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럽의 전반적인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서는 갑작스런 폭풍우가 찾아와(2~15mm) 프랑스 북부지역, 독일, 폴란드 등에서는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지역적으로는 최고 50mm 이상),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을 비롯한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었다.
- 구소련(서부): 서부와 남부지역은 강한 비가 내렸고, 반대로 동부지역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중부와 서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강한 비가 내렸으며(10-70mm), 봄철 작물과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이번 비는 지난 5월 지속되었던 가뭄 피해가 예상되었던 남부 지구의 Krasnodar Oblast의 가뭄을 다소간 해소해 주었다. Moldova 북부지역과 우크라이나 중부지역 일대에도 비가 내렸다. 러시아 Volga 지구에서는 더운 날씨(32~36°C)가 유지되어 겨울밀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때때로 강한 소나기가 내려(5~30mm)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
- 동아시아: 중북 북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걸쳐 소나기가 내렸다. 북동부지역에서는 25mm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곳에 따라서는 50mm이상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강우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까지 지난 해 전체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내렸다.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Yangtze 계곡부터 남부 해안지역에 걸쳐 소나기가 내렸고(25-150mm), 모내기를 하는 농경지에는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었다. 이번 비로, 면화나 대두 등의 성장에 필요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었지만, 봄철 쌀 수확작업과 가을 쌀 파종 작업은 조금 늦춰졌다. 중국 북부 평원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 덕분에 겨울밀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한반도에서는 가뭄이 지속되어 쌀 재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중부와 Honshu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었다. 주요 곡창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C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북부 평원 지역에서는 기온이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 호주: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겨울밀과 유지작물 성장에 필요한 수준이 어느 정도 공급되었다(5-25mm). 빅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려 밀과 보리, 카놀라 발아가 촉진되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흩뿌렸으며, 퀸즐랜드 남부 등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작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기온은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1°C), 서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3°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여름작물 수확이 앞당겨졌다. 중부와 북부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6°C 정도 높게 유지되었다. 북동부 면화 재배지역(Chaco, Formasa) 등에서는 주 초반 비가 내려 야외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Buenos Aires 일부 지역에서는 30°C 가까이 기온이 치솟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작지에서 밤에도 기온이 0°C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의 수확률은 52%, 콩의 수확률은 9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0%p 앞선 수준이다.

■ 브라질: 산발적으로 비가 흩뿌려 사탕수수, 커피 등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파라과이 전역과 Minas Gerais, Mato Grosso 북부지역, Parana 등에도 10~50mm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작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Sao Paulo, Minas Gerai 등에서의 야외 농작업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브라질 북동부 내륙에서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고(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치솟음), 이 때문에 옥수수와 면화 성장이 촉진되었다. 남부 주요 곡창지역(Parana 남부에서부터 Rio Grande do Sul 북부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Rio Grande do Sul 지역의 밀 파종 작업은 15%정도 이루어졌으며, 습한 날씨가 지속되어서 20%p 정도 작업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동부 연안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소나기가 지속되었고(10~50mm), 사탕수수, 코코아 등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